



성공회 영등포 성당

St. Christopher's Anglican Church

(07299)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430 ☎ 02-2671-6290, 2633-8877(팩스) © stchris@anglican.kr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요한 13:34)

2022년 12월 11일 대림 3주일(장미주일) · 가해 · 장미색

제57-49호

세례자 요한의 기다림과 기쁨

(마태 11:2-11)

하느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 굳게 믿었던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하느님의 아들일 것 이라 생각합니다. 감옥에 갇힌 세례자 요한은 제자들을 시켜 예수님이 기다리던 그 분이신지 묻습니다.

오늘은 대림 3주일입니다. 대림 3week는 장미주일로 부릅니다. 장미주일은 대림절의 정점을 지나는 시점에서 곧 다가올 주님의 성탄을 미리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일입니다. 장미주일의 기쁨을 통해 오늘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 기다리던 분,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소경이 보고, 절름발이가 제대로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진다”는 말씀은 지금까지의 막연한 기다림이 곧 성취될 것이라는 희망의 기쁨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메시아, 곧 구원자는 잃어버리고 부서진 삶을 회복시키는 일이 메시아의 사명이며 당신을 그 일을 위해 세상에 오셨음을 전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해들은 세례자 요한도 분명 오늘 1독서에서 읽은 이사야 예언서의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요한의 기다림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만큼 그의 희망과 기쁨도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시라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장미주일인 대림 3week를 지내며 세례자 요한의 처지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힌 답답함 속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며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세례자 요한의 모습을 만납니다. 어쩌면 세례자 요한의 모습은 세상의 법칙에 매여 있는 삶을 사는 우리의 처지와 닮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무게를 견디듯이 세례자 요한은 갇혀있는 중에도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을 알지만 아직 완전한 기쁨을 누리기에는 세례자 요한의 처지가 처량하기만 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임을 알고 있지만 주님의 재림으로 맞이할 기쁨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우리 삶의 처지가 그리 낙관적이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메시아에 대한 희망과 메시아가 이를 구원에 대한 기쁨을 미리 선취하는 모습을 보인 세례자 요한을 높이 칭찬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 삶의 곤고함 속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대한 굳은 믿음과 주님께서 베푸어 주실 구원에 대한 희망과 기쁨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을 미리 닦은 세례자 요한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쁨과 희망 속에서 기다리며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기다림과 기쁨이 우리의 기다림과 기쁨이 되도록 우리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세례자 요한입니다..

(구균하 신부)

주일 성찬례 일요일 오전 9시 | 오전 11시

평일 성찬례 화·수·목·금 오전 6시 30분

어린이 예배와 영성체 오전 11시

청소년 예배와 영성체 오전 11시

서울교구장 이경호 베드로 주교

관할사제 주낙현 요셉 신부

보좌사제 구균하 요나로렌스 신부

신자회장 김중희 요셉

사제회장 서남철 아브라함



모든 교우는 교회 소식란을 상세히 읽어주시고, 사목 일정과 교우 소식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문자로 드리는 긴급 소식이나 보고를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례와 사목

◆ 주간 아침 성찬례 안내

대림절기의 신앙을 다지는 시간이기를 바랍니다.

(화, 수, 목, 금 오전 6시 30분 성전)

교회위원들은 최소 1주 1회 이상 참석해 주세요.

■ 알림

1. 12월 교회위원회

12월 11일(오늘) 오후 12시 45분 3층 회의실

2. 새교우 환영 잔치

12월 18일(다음 주일) 오후 12시 30분, 1층 친교실 (식당 공간)
올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한 교우들을 환영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새교우들은 꼭 참석해 주세요..

3. 신학잡담회

12월 22일(목) 오후 7시부터, 스멜팅 커피 (문래역 7번 출구)
성직자와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차 한 잔을 마련하여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과 함께 오면 더 좋습니다.

4. 성탄 마구간과 후문 출입문

- 성당 후문에 마구간을 설치하고 기도문을 마련했습니다.
- 성당 후문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교체하였습니다.

5. 선교 특별 봉헌 계속

우리 성당 선교 특별 봉헌에 참여하여 주세요.

〈선교 특별 서약서〉를 작성하시고, 〈선교 특별 봉헌〉 봉투를 이용하여 봉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활동단체

◆ 요한회 송년회

12월 18일 (다음 주일) 11시 성찬례 후

■ 교우 소식

◆ 꽃 봉헌

김예중 요안나 교우가 봉헌해 주셨습니다.

◆ 생일을 축하합니다

김성희(11일) 정명옥(12일) 원영숙(13일) 김난희(16일)

정상임 전병도(17일)

◆ 어머니회 선교기금 물품 판매

- 다시마 1kg(1박스) 1만8천원 - 참기름 1병 1만원
- 미역 1kg(1박스) 2만5천원 - 들기름 1병 1만2천원
- 엿기름 600g 4천원 - 녹두 800g 2만원
- 떡국떡과 가래떡 주문받습니다.

※ 판매 수익금은 타 지역교회와 외부 선교단체를 위한 선교기금으로 사용됩니다.)

※ 현금 액수는 인쇄 종이 주보에만 실리며, 전자문서(이메일, 홈페이지) 주보에는 실리지 않습니다.

■ 십일조 · 월정헌금

고아랑 구균하신부 김건우 김중희 송미경 신명식 심순덕
우영현 유인경 윤길자 윤범기 윤선구 이용해 이충웅 정상임
정정훈 조혜순 주낙현신부 한재업

■ 주정헌금

김경아 김경찬 김삼홍 김요한 박남미 박성준 박소현 박주영
변금숙 변진선 서정민 송미경 송종익 신희숙 심종은 유권열
유희주 윤영자 윤옥량 이경희 이규리 이성빈 이은미 이자영
이정숙 이종한 전병도 정명옥 주창남 주창순 한부순 홍성호

■ 감사헌금

김복근(건강) 서울교구남성합창단(장소사용) 선병순(생활)
우영현(생활) 이현정(생일)

■ 선교특별헌금

구균하신부 유인경 변진선 우영현 이용해 조혜순 최종주

■ 기타헌금(미사 헌금 · 주일학교 · 학생회 등)

목적 헌금

■ 예수사랑

박남미 심주민 우영현

성공회 영도포 성당 봉헌 안내

■ 십일조(월정헌금) 일반·감사 등 봉헌

기업은행 083-082654-04-015

† 기도해 주세요 †

■ 어려운 교우와 환자를 위하여

한부순 손정자 박길자 정상운 권영달 김경옥 이명길 채옥순
최종주 유호애 김복근 이순환 김영화 김정수 김경수

■ 장기출장 박지혁 김슬기 윤상기 한지원(미국) 서한열(캐나다)

■ 군복무 양승환 김예찬 양승운 박정호

■ 유 학 이재성(독일) 이사빈(독일)

■ 새교우 김경한 김도휘 전인재 배하은 이혜진 이나라

장미 주일 - 심으로 미리 맛보는 기쁨

‘장미 주일’로 부르는 주일이 교회력에 두 번 있습니다. 대림 3주일과 사순 4주일입니다. ‘장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례 색깔도 장미색을 씁니다. 장미는 그 화려한 색깔과 짙은 향기로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필 왜 참회와 절제의 절기 중간에 이러한 화려한 기쁨이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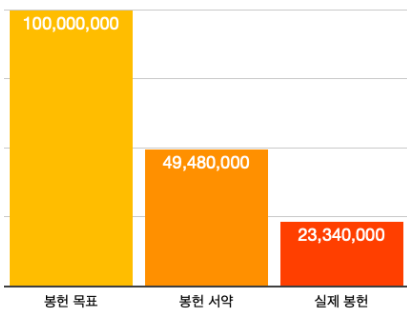
지금처럼 대림절기와 사순절기의 절제 생활이

느슨해진 것은 아주 최근 일입니다. 그 전에는 이 기간, 금육, 금식 등 절제 생활이 엄격했습니다. 지루한 절제 시간 가운데 잠시 휴식을 주려는 것이었을까요? 전통에서 보면, 사순 4주일에는 미사 입당송 ‘즐거워하라(Laetare)’를 불렀고, 대림 3주일에는 ‘기뻐하라(Gaudete), 주님 안에서’를 불렀습니다.

이 두 주일에 ‘장미’가 붙은 이유가 여럿입니다.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지배자 신들은 장미를 엮어 화관을 썼는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지배자들의 신화를 뒤집었습니다. 장미를 억압당하고 박해받은 순교자의 관으로 바꾸었습니다. 가시관 쓰신 예수님을 따라 순교자도 가시 찔리는 고난이 있었으나, 그 신앙은 아름답고 향기롭다는 뜻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의 상징은 백합과 장미였습니다. 장미의 가시는 예수를 잃은 어머니 마리아의 ‘심장을 아프게 찌르리라’는 시므온의 예언과 들어맞았습니다.

신앙의 내용과 형태를 단칼에 정리할 수는 없습니다. 혹독한 신앙의 수련도 있지만, 그 안에는 신앙인의 연약함을 향한 너그러운 배려도 있습니다. 배고픔과 갈증, 인간 내면의 어둠 속에서 험벗은 외로운 자신을 깊이 돌아보는 훈련인가 하면, 기쁨을 향한 희망과 감각을 잊지 말라는 격려이기도 합니다. 전례는 이처럼 여러 뜻이 겹쳐져 서로 모순되듯이 존재하고 관계하면서 신앙의 신비를 드넵니다.

선교 특별 봉헌 현황



아기 예수로 오시는 하느님을 설렘과 기쁨으로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장미색처럼 환하게.

봉헌 목표액: 1억원 (2023년 12월까지)

봉헌 서약액: 49,480,000원 (12월 4일 현재, 서약자 31명)

봉헌 누적액: 23,340,000원 (12월 4일 현재)

❖ 섬기는 교우들 ❖

교회위원 구정애 변금숙 선병순 신한중 윤영옥 전병도 조진성 추경민 한재업
원로위원 서세륜 유호애 송갑호 추형두 이종웅 이용해 박해웅 윤용환 이종한
보혈조력 박해웅 신한중 윤영옥 윤용환 이용해 이종한 차기성

성가대 지휘 김민숙 선창 한재업
반주 고아랑 심민경
제단꽃꽂이 이정희 이난희 이광재(마리아)

감사성찬례 1형식 (기도서 244-272쪽)

✧ 기도서 ♪ 성가

실시간 동영상 오전 11시 www.youtube.com/성공회영등포성당

개회예식

입당성가(선다) ♪ 248장 다함께
정심기도 ✧ 244 집전자
죄의고백 ✧ 245 다함께
주여 우리에게 오시어 ✧ 246 / ♪ 88 다함께

말씀의 전례

본기도 집전자

주 하느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를 사랑으로 지켜주시나이다. 비오니,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닫힌 눈을 열어주시어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1 독서(읽는다) 이사 35:1-10 말은이
시편 시편 146편 다함께



- 1 복되여라, 야곱의 하느님께 도움 받을 사람!
○ 자기 하느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
- 2 하느님은 하늘과 땅, 바다와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분,
○ 언제나 신의를 지키시니
- 3 억눌린 자들의 권익을 보호하시며
○ 굶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 4 주님은 묶인 자들을 풀어 주시니.
○ 주께서, 앞 못 보는 자들을 눈뜨게 하시고
거꾸러진 자들을 일으켜주시며
- 5 주님은 의인을 사랑하신다. 주님은 나그네를 보살피시고,
○ 고아와 과부들을 붙들어 주시니 악인들의 길은 멸망으로 이끄신다.
- 6 주, 영원히 다스리시니
○ 시온아, 네 하느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 알렐루야!
- ◎ 영광이 성부와 ○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 지금도 ○ 그리고 영원히, | 아멘

2 독서(읽는다) 야고 5:7-10 말은이
총계성가 9시 ♪ 383 11시 성가대 특송
복음환호송(B곡) ✧ 301/♪ 56 말은이
복음서(선다) 마태 11:2-11 말은이
설교(읽는다) 말은이

니케아신경(선다) ✧ 249 다함께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251 말은이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선다) ✧ 256 다함께
봉헌성가 ♪ 558장/유빌라테회 다함께
예물기도 ✧ 256 말은이
성찬기도 (1양식) ✧ 257
거룩하시다 (B곡) ✧ 257 / ♪ 77 다함께
기념환호송 (1양식) ✧ 259 / ♪ 62 다함께
마침영광송 ✧ 259 / ♪ 64 다함께
주의기도 ✧ 269 / ♪ 65 다함께
성체 나눔 ✧ 269 다함께
하느님의 어린양 (B곡) ✧ 270 / ♪ 78 다함께
영성체 (읽는다) ✧ 270
영성체 성가 다함께
영성체 후 기도(선다) 다함께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가 이 성찬으로 주님의 자비하신 은총을 받았나이다. 비오니, 우리로 하여금 이 성사를 경건하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된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광고(읽는다) 말은이

파송예식

축복기도(선다) ✧ 271 집전자
파송 ✧ 272 말은이
파송성가 ♪ 503장 다함께

| | 이번 주일 성찬례 (12월 11일) | | 다음 주일 성찬례 (12월 18일) | |
|------------------|---|---------|--|---------|
| | 9시 | 11시 | 9시 | 11시 |
| 집 전 | 구균하 신부 | 주낙현 신부 | 주낙현 신부 | 구균하 신부 |
| 설 교 | 구균하 신부 | 주낙현 신부 | 구균하 신부 | 주낙현 신부 |
| 1독서 | 우영현 | 김민경 | 송종익 | 윤지훈 |
| 2독서 | 서정민 | 이성빈 | 서정민 | 박계자 |
| 대 도 | 이경희 | 전병도 | 신명식 | 변금숙 |
| 십자가 | 윤용환 | 차기성/신환종 | 박해웅 | 이용해/윤영옥 |
| 다음 주일 12월 18일 | 전례독서 이사 7:10-16 시편 80:1-7, 17-19 로마 1:1-7 마태 1:18-25 성 가 입당 139장 봉헌 444장 영성체 성가대 파송 289장 | | | |
| 성 당 청 소 | 12월 17일 모니카4초 김난희 심순덕 윤영옥 이태훈 정은숙 주창남 | | 12월 24일 G.F.S.1초 정명옥 고아량 김민숙 문혜화 오현희 객은영 이윤나 | |